

2019-08-14 지공여행2차 전대 에버랜드역에서 명지대역까지

드디어 2차 지공여행을 다녀옴

1시간 50분 동안 지하철을 타고 가서 2시간을 걸은 뒤 다시 2시간 지하철을 타고 옴  
물론 공짜로...

내방역-강남구청역-분당선-기흥역-에버랜드역

35도가 된 방안에 있기보단 시원한 지하철을 타고 원하던 여행을 공짜로 다니는 맛  
어르신이 된 기분을 만끽하는 중

시원한 막걸리 한 병 마셨으면 좋겠는데  
막걸리 후유증이 걱정이 되어 참고 참는 중

집에 가서 시원하게 씻고  
꿀잠이나 자야겠당...

9월 6일 횡성휴게소 휴가가서 갈 계곡을 찾았으니 휴가계획도 거의 완성  
열심히 일한 당신들  
횡성가서 쉬자구나.